

명작 탄생 현장에서 소설의 본질을 만나다

태양의 저쪽 밤의 이쪽

함정임 지음



함정임 작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하면 소설과 함께 여행이 떠오른다.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의 결과물로 글을 쓴다. 프루스트의 파리, 토마스만의 베네치아, 카뮈의 루르마랭, 박완서의 아치를 마을, 한강과 박솔뫼의 광주... 함 작가는 작가들의 공간을 기웃거리며, 작가들이 무엇 때문에 평생을 작품에 매달렸는지 사유한다.



피츠제럴드가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집필을 시작했던 그레이트넥 게이트웨이 드라이브 6번지 전경. <열림원 제공>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특유의 아우라를 발산한다. 그 아우라를 고스란히 느끼기 위해 여행길을 오를 때는 소설 한 권씩을 품고 가라고 권유한다. 런던에는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이나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더블린에는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추천한다.

아울러 일반의 눈에는 어쩌면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소설 따위'가 작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부연한다. 소설을 쓰는 일은 고된 노동이지만 마치 "천 개의 바늘 끝이 머리 한쪽을 수없이 찌러대는 고통"의 연속일 지라도 지극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비평가이자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의 '롤랑 바르트, 마지막 강의'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소설은 세계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세계를 혼합하고 또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소설이 지닌 마력이자 본질이 다. 함 작가는 소설의 다시 말해 "맑고 투명한데 찌르듯

아프고 아프면서 아름다움에 몸을 떨게 만드는 힘"을 지지하고 믿는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나는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에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유년의 우주가 깨어 일어"나고,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의 엠마는 한적한 시골에서 귀부인의 삶을 동경하다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비록 소설 속 이야기지만 그것은 늘 새롭게 해석되고 또 다른 서사를 견인한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소설은 치유의 힘이 있다. 함 작가는 한강과 박솔뫼의 소설을 읽다보면 일종의 호명 행위라고 부연한다. 두 작가의 어떤 페이지에서도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오래된 슬픔, 또는 자기 안팎에 떠도는 이름들을 제대로 호명"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소설이 지닌 자유함과 치유는 어떤 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열림원·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책

▲나의 아메리카 생존기=2005년 '수상한 식모들'로 제11회 문학동네소설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박성강이 청소년을 위해 쓴 첫 장편소설. 한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고교 생활을 시작한 이태조군의 이야기를 그렸다. 작가의 지인이 경험한 이민기를 토대로 썼으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낯선 곳에 내던져진 혼란 속 10대 남학생의 심리묘사가 돋보인다. <스피리투스·1만3500원>



▲숨을 참다=팬데믹 2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담은 르포 열한 편을 묶었다. 직장갑질119와 김동무의 기획으로 모인 김중진, 박내현 등 11인의 작가들은 지난 2년간 국가와 기업은 무엇을 했고 또 하지 않았는지, 팬데믹은 누구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었고 누구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안정과 복지는 누구에게 분배되었고 누구를 제외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후마니타스·1만8000원>



▲땅끝의 아이들=고(故) 이영전 전 문화부 장관의 딸 이민아 목사(1959~2012)의 10주기를 맞아 출간된 개성판. 그러나 영접 후 이 목사에게 일어난 여러 시련과 시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보고 들은 놀라운 영적 체험과 깨달음이 담겼다. 이 목사는 한때 자신도 벼랑으로 내몰려 땅끝에 선 아이들과 같았음을 고백하며 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후마니타스·1만8000원>

▲운전하는 철학자=미국에서 정치철학을 연구하며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운영하는 매슈 크로퍼드는 운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인간답게 만든다고 말한다. 저자는 운전이란 기계가 침범하게 놓아둘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운전은 단순한 행위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인간성, 윤리와 신뢰, 책임과 권리를 향한 철학적 탐구로 나아간다. <시공사·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그림자 극장=언니가 만든 토끼 인형이 망가졌다. 동생이 목공풀로 망가진 인형을 붙여 보려 하지만, 점점 더 엉망이 될 뿐이다. 언니는 화가 나서 동생을 밀치고, 동생은 넘어져서 이마를 다친다. 그날 밤 자매가 깊이 잠든 사이 자매의 그림자는 그림자 극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 김규아 작가는 속앓이하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책읽는곰·1만8000원>

▲오리국수=최남주 작가와 방콕에서 활동중인 그림책 삽화가 편뿔 뿔크러 합작이다. 길거리에서 소박한 오리국수를 파는 딱 아주머니는 떠돌이 개 누렁이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이 가장 잘 차릴 수 있는 오리국수를 정성껏 말아 주었고 이 작은 정성은 누렁이의 마음에 스며들어 마침내 강아지의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정키북스·1만4000원>

▲갯구멍 11호=수상한 시리즈의 박현숙 작가의 책. 어느 날 밤, 눈앞에 나타난 산신령의 제안에 따라 곤충 흉내를 내며 인터넷 방송을 하는 '튜브튜버'가 된 황재수. 그러던 중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실에서 방송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데... 황재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갯구멍 11호를 찾아가는데... SNS를 사용시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전한다. <복면토·1만2000원>

▲고민해결사 갯구멍 11호=수상한 시리즈의 박현숙 작가의 책. 어느 날 밤, 눈앞에 나타난 산신령의 제안에 따라 곤충 흉내를 내며 인터넷 방송을 하는 '튜브튜버'가 된 황재수. 그러던 중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실에서 방송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데... 황재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갯구멍 11호를 찾아가는데... SNS를 사용시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전한다. <복면토·1만2000원>

학습효과 쑥쑥... 글쓰기·독서·공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탁석산의 공부 수업

탁석산 지음



공부는 왜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다. 당장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성인들도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좀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습관처럼 '공부하는 삶'을 염원한다.

말하는 저자는 적절한 뇌 과학의 원리를 습관으로 만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부의 원리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라고 설명한다.

1부 '공부의 기초'에서는 '기억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시차 두기와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기억의 양'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 25분 집중력 훈련하기, 적절한 때 공부 멈추기, 칸막이식 연습 피아기 등 다채로운 공부 기술을 알려준다. 2부 '공부의 활용'은 '책 읽기의 기술-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글쓰기의 기술-매일 쓰는 습관과 논리적 사고', '말하기의 기술-또는 말하지 말 때를 아는 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책 읽기에서 그가 권하는 방법은 '시차 두기'와 '섞어서 읽기'다. 시차를 두고 몇 번이나 다시 읽다 보면 시야가 넓어진다. 시와 소설은 물론, 수준이 높은 작품일수록 생각할거리가 새롭게 생기고, 관점을 바꾸며 전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이 몰두한 책의 존재를 늘 마음에 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에겐 린위탕의 '생

활의 발견'이 그런 책이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통은 관련 없이 보이는 분야를 섞어서 다양하게 읽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전문 분야 독서를 수행하는 데 이롭다. 다른 분야를 접해보야 뇌가 자극되어 활성화되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으며,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분야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섞어 읽기'의 방법은 다양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도 사람이나 주제를 정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고, 다음 3년은 주제나 사람을 바꿔 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수십 년을 해왔으니 길게 보면 '섞어서 읽기'가 된다.

마지막 글은 배우려면 필요한 것들이다. 저자는 사전, 인터넷과 더불어 친구와 사람, 그리고 여행을 배우는 데 꼭 함께 해야 할 것들로 꼽는다. 또 끈기, 실수를 인정하는 유연한 자세, 겸손, 모르는 것을 묻는 정직함, 남을 인정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열린책들·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